

韓國 地域經濟의 均衡開發을 위한 金融制度 및 運用改善 方案*

— 地域金融의 活性化를 중심으로 —

金 泰 保**

目 次

- I. 序 論
- II. 地域經濟發展과 金融의 役割
- III. 韓國經濟의 地域金融의 現況과 構造의 特徵
- IV. 韓國 地域經濟의 均衡發展을 위한 金融制度 및 運用改善 方案
- V. 結 論

I. 序 論

지난 60年代 이후 韓國經濟는 經濟成長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 成長戰略産業을 선택하여 金融的·財政的·行政的 政策手段을 총동원하여 集中投資하는 不均衡開發戰略을 추구하여 왔다. 그 결과 效率性은 중시되고 향상되었으나 國民經濟의 空間構造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여 地域間 經濟隔差가 심화되게 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首都圈의 宗主化를 강화하여 地方經濟를 상대적으로 영세하게 만들었고 落後된 産業構造를 지니게 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같은 地域間, 階層間, 産業間의 經濟的 不均衡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韓國經濟는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성장의 果實을 地域間, 部門間, 職種間에 균형있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또 하나의 本質的인 經濟問題에 봉착하게 됨으로써 成長과 分配의 衡平性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經濟政策目標로 부상하였다.

* 198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상대학 부교수

1) Richardson, H. *Regional Economics: Location Theory, Urban Structure and Regional Chang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69. pp.24~25.

地域經濟는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地理的 分割單位에서 전개되는 空間經濟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地域經濟의 개발은 국민경제상의 效率性和 地域間 所得 및 福祉의 衡平性 추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국민경제의 能率性を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國土空間上의 여러지역에 살고 있는 각 地域住民들에게 所得과 그에 따른 福祉가 고루 나누어 질 수 있는 방향에서 地域經濟開發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國民經濟이든 地域經濟이든 實物部門과 金融部門이 수레의 두바퀴처럼 相互補完的으로 작용할 때 원활한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金融部門의 資金循環이란 實物部門의 재화의 생산 및 流通의 카운터·파트인 만큼 지역경제가 均衡的으로 발전하려면 자금순환 역시 實物生産活動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균형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地域經濟發展에 있어서 金融의 役割에 대해 理論的으로 고찰하고 國民經濟의 인 관점에서 地域金融構造를 분석하여 構造의 특징과 問題點을 적출하고 韓國 地域經濟의 均衡發展, 또한 地域經濟 活性化를 가져올 수 있는 金融制度 및 運用改善 方案을 모색하는데 있다.

II. 地域經濟發展과 金融의 役割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地理的 分割單位에서 전개되는 空間經濟인 地域經濟는 최소한 資源을 國土의 일부공간상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일체의 활동으로서 生産, 消費, 交換, 分配의 측면을 포괄한다.

地域經濟는 國民經濟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地域經濟는 空間概念을 중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傳統的인 經濟는 經濟的 效率性 만을 추구하여 최소한 資源을 어디(where)에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²⁾ 그러나 地理的 空間上에서 최소한 資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生産·교환·분배 및 소비의 과정으로 이해되는 地域經濟는 資源의 空間的 配分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이다. 이때 空間 내지 地域은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空間的 對象인 經濟圈域(economic space)으로서 生産·소비활동 또는 유통체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劃定한 空間的 범위를 뜻한다.³⁾ 이와 같은 經濟圈域은 同質性(homogeneity) 結節性(nodality), 計劃性(planning)의 기준에 의해 구획된다.⁴⁾

또한 地域經濟는 國民經濟보다 더 開放的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地域經濟는 國民經濟의 개념에 비하여 一 규모나 활동영역이 작으며 동일한 稅制, 貨幣單位, 法律이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성을 띤다. 他地域과의 商品交易程度로 측정되는 개방성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地域規模

2) Samuelson, P A, "Spatial Price Equilibrium and Linear Programm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52, p 267.

3) Nourse H O *Regional Economic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8, pp. 129-136.

4) Richardson H. op, cit pp. 223-230.

와 地域間 距離에 역비례하는 경향이 있다.⁵⁾ 한편 地域經濟는 기후, 지리적 조건, 부존자원 등이 다르고 이러한 地域特性들은 地域間 移動性이 전혀 없으므로 각 지역은 특성에 따라 特化를 하게 된다. 地域經濟學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空間的 分化現象을 地域主義(regionalism)라 일컫는다.⁶⁾ 이와같이 地域經濟는 開放的을 가짐과 동시에 地域主義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부여 받고 있어서 지역간 교역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보다 特化된 지역생산을 가능케 한다. 地域特化 生産은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생산기술 및 생산요소 부존량 차이로 생기는 相對的 比較優位性에 근거하고 있다.⁷⁾

地域經濟는 開發目標을 궁극적으로는 失業解消, 遊休資源의 活用 및 所得增大, 그리고 地域隔差의 완화에 두고 있다. 따라서 前者는 국민경제성장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效率性을 높이는 일로서 落後地域, 沈滯地域의 失業救濟와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住民所得增大에 있다. 後者는 地域間 成長 및 福祉의 隔差를 줄이는 衡平性을 진작시키는 것으로서 落後地域産業開發과 過密地域分散, 人口의 過密·過疎地域調整 등의 地域隔差緩和에 있다.⁸⁾ 效率性을 목표로 하는 地域經濟開發은 다소의 地域間 不均衡과 지역간 集中現象이 일어나더라도 성장을 政策目標로 하는 지역경제개발을 의미하며 衡平性을 목표로 하는 지역경제개발 정책은 성장과 발전이 지역의 均衡的 分散과 지역간의 福祉를 우선하는 개발정책목표를 의미한다.

經濟發展過程上 金融이 수행하여야할 役割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한 金融의 役割은 첫째, 成長通貨의 공급, 둘째 貯蓄과 投資를 仲介하는 즉 金融仲介의 기능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⁹⁾ 경제발전은 生産能力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과정을 말하며, 生産能力의 지속적인 증가는 效率的인 資源利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資源利用에 관한 새로운 革新(innovation)을 구상하여 실천하는 것이 기업이며,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이러한 革新을 수행하는데는 資本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기업가의 自己資本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革新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金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銀行으로부터 借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때 銀行이 기업에게 供與하는 자금은 經濟發展過程上 대부분 信用創造를 통하여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경제발전을 위한 金融의 제일의 役割이다.

金融의 經濟發展過程上 수행하는 제2의 역할은 金融仲介, 즉 貯蓄者로부터 投資家에게 資金의 흐름을 仲介하는 저축과 投資의 仲介機能이다. 은행을 포함하는 金融仲介機關은 한편으로는 저축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종류의 金融商品을 제공함으로써 영세한 家計部門의 저축을 동원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나 기타 資金使用者가 발행하는 本源的 證券을 매입함으로써 金融機關에 집중된 저축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金融仲介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5) Brown A. *The Framework of Regional Economics in the United Kingdom*.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72, pp. 72~76.

6) Massey, D "Regionalism : Some Current Issues" *Capital and Class*, Vol 6, 1978, pp. 106~125.

7) Richardson H, op, cit. pp. 225~227.

8) Stilwell, F J B, *Regional Economic Policy*,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72, pp. 19~21.

9) 趙淳 "金融産業의 長期的 展望", 「經濟發展과 金融産業」 韓國投資金融株式會社 1981, pp. 5~10.

다. 기업의 資金調達은 경제발전초기에는 어느 국가나 信用創造에 크게 의존하게 되지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금융증개를 통한 방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民間部門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이 늘어나게 되며 그러한 저축을 가능하도록 하여주는 서비스도 다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金融이 經濟發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需要追從型(demand following)과 供給先導型(supply leading)의 두가지 유형으로 설명되고 있다.¹⁰⁾ 需要追從型은 金融資産에 대한 需要側面을 강조한 理論으로서 實物經濟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며, 이에 부응해서 金融構造의 발전이 촉진된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供給先導型에서는 金融資産에 대한 충분한 需要가 발생하기 이전에 금융자산을 공급하면 전통적인 非成長産業으로부터 재원을 成長産業으로 이동시키고 現代的 成長産業에서의 企業家活動을 촉진시키게 되며, 따라서 實物經濟의 發展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Patrick은 더 나아가 두 유형이 상호교차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經濟開發 초기에는 金融資産의 공급에 의한 供給先導型 金融構造를 창출하여 實物投資를 촉진시키고, 그리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일어나면 需要追從型 金融構造로 전환시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金融深化에 의한 實物經濟에의 영향은 既存 實物資産配分の 效率化, 新規貯蓄의 效率的 投資配分, 實物貯蓄의 촉진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¹¹⁾ 다시 말하여 다양한 金融資産의 공급은 貯蓄者, 投資者에게 더 많은 저축과 金融機會를 부여하게 되고 낮은 價格의 충분한 자금이 기업가에게 공급되면 기업은 그들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創意的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實物經濟發展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需要追從型이나 供給先導型 모두 經濟發展과 金融産業發展간의 현실적인 相互因果關係의 설명에 있어서는 論理的 타당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經濟發展과 金融間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는 異論이 없다.

Adelman과 Morris는 7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경제개발과 금융발전과는 正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였고¹²⁾, Goldsmith도 經濟發展과 金融深化現象의 상호연관성을 나타내는 金融聯關比率를 이용하여 長期的으로 경제발전과 金融發展이 밀접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¹³⁾ McKinnon도 金融資産의 蓄積과 實物資産의 축적간에는 相互補完關係가 있다고 보아 金融産業의 발전이 實物經濟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적절한 金融政策을 통하여 實物經濟는 발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⁴⁾

이러한 見解들은 각각 理論的·現實的 根據를 가지고 있어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 않으나, 經濟

10) Patrick HT.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Underdeveloped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anuary 1966. pp.174~189.

11) Ibid. p. 118.

12) Adelman In and C Morris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John Hopkins Press, Baltimore 1967. 64~96.

13) Goldsmith R. W. *Financial Structure and Development*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69. pp.86~100.

14) McKinnon RI *Money and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73. pp. 126~132.

發展過程에서 金融의 성장이나 深化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제약되거나 억압되면 그로인해 實物經濟發展이 저해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見解가 일치되고 있다. 따라서 實物經濟와 金融間에는 供給先導的 기능과 需要追從的 기능이 함께 작용하며 그 기능이 어떠한 형태를 띠든간 金融이 實物經濟의 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實物經濟의 성장·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지금까지 國民經濟를 대상으로 經濟發展에 있어서 金融의 役割과 經濟發展과 金融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는 地域經濟를 대상으로 論議하여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地域經濟發展에 있어서의 金融의 役割도 信用創造를 통한 成長通貨의 供給, 貯蓄과 投資의 仲介機能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地域經濟에 있어서도 金融과 實物經濟와의 관계가 金融이 實物經濟의 성장을 결정하는 供給先導的이든, 金融이 實物部門의 發展에 의해 이루어지는 需要追從的이든 간에, 일단 金融과 實物經濟는 서로 깊은 關聯性을 지닌 가운데 相互補完的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金融部門이 성장하고 實物部門의 성장을 유도하고 實物部門의 성장을 다시 金融部門의 성장을 유도해 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내의 實物經濟成長에 대한 金融의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경제발전은 달성될 수 있다. 무릇 경제발전은 경제내의 實物部門과 金融部門이 相互補完作用을 해야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地域經濟의 均衡發展 및 活性化를 위해서는 지역경제내에서 產業構造高度化를 통한 實物經濟의 성장과 자금의 효율적인 仲介·配分을 통한 金融部門의 活性化가 相互補完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지역경제내에서 1차적으로 금융부문이 實物部門의 발전을 촉진시킨 다음, 實物部門이 발전해감에 따라 金融機能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자연히 金融部門의 活性化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Ⅲ. 韓國經濟의 地域金融의 現況과 構造的 特徵

金融이 資金의 融通을 뜻한다면 金融產業은 資金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生産, 供給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근대적이고 전문적인 金融機關들로 구성된 金融制度를 가지고 있다. 이들 金融機關들은 通貨金融機關과 非銀行金融仲介機關으로 나누어지는데 銀行金融機關은 中央銀行인 韓國銀行과 一般銀行 및 特殊銀行으로 구성된 預金銀行을 포함한다. 非銀行金融機關은 다시 仲介能力에 따라 開發機關, 貯蓄機關, 生命保險會社, 投資會社의 4개 범주로 분류된다. 이 밖에 넓은 의미에서 金融活動을 하고 있기 때문에 準金融機關으로 간주될 수 있는 韓國信用保證基金과 리스會社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金融產業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銀行金融機關이 대부분의 金融仲介業務를 수행하는 단순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非銀行金融機關들이 급속히 성장하여 우리 金融制度도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1. 資金配分方式의 非伸縮性 및 中央 集中化

經濟發展過程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部門別 生産 및 總量成長目標의 설정과 함께 投資資本의 확보와 調達된 資本을 어떠한 基準 또는 原則에 입각하여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그 目標을 대외지향적인 經濟體制下에 高度成長의 시현에 두고 不均衡成長을 추구하여 投資의 우선순위를 工業部門, 특히 수출산업부문에 두고 投入資本規模를 通貨量, 本源通貨, 國內與信, 總通貨 등의 量的 指標를 기준으로 하여 財政計劃에 의하여 事前的으로 결정하는 資金配分方式을 취하였다. 따라서 經濟發展에 있어서 資金配分은 特定産業, 特定部門에 편중되었으며 國民經濟上的 중요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하여 政策金融 형태로 資金을 공급하여 왔다.

(표 1)에서 보듯이 金融機關貸出 중 政策金融이 1975년 50.8%이던 것이 1980년대에 들어와 60% 이상을 차지하여 왔는데, 貸出의 규모와 方向이 國家的 차원에서 事前的으로 지정되었다. 그동안 政策金融은 重化學工業과 輸出産業部門에 자금의 지원이 집중되어 왔는데 정책금융 중 가장 비중이 높은 金融資金의 地域別 貸出實態를 보면 (표 2) 1988년말 貸出金 11조 457억원 가운데 서울이 8조 36억원으로 72.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地方은 3조 97억원으로 27.2%에 불과하여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金融機關의 貸出에 있어서 政策金融이 一般金融보다 우선적으로 대출되는 것이 보편화됨으로써 政策金融의 공급증대는 政策金融 전담기관에서 보다는 地方銀行을 포함한 一般銀行의 資金運用上的 制約的인 효과를 미쳐왔는데, 地方銀行은 필요시에 資金運用면에 있어서 우선적인 調整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같은 사정은 지방은행이 地域의 中心銀行으로서 實物經濟의 성장 및

<표 1> 정책금융 비중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구분	금융기관총대출	정책금융	일반금융
1975		46,925	23,837	23,086
		(100.0)	(50.8)	(49.2)
1980		243,074	165,776	77,298
		(100.0)	(68.2)	(31.8)
1985		725,275	476,077	258,198
		(100.0)	(64.4)	(35.6)
1986		835,006	531,899	303,107
		(100.0)	(63.7)	(36.3)
1987		980,879	615,992	364,887
		(100.0)	(62.8)	(37.2)

자료 : 한국은행 및 각 지방은행 1988.

〈표 2〉 地域別 韓國銀行 貸出金 推移

(단위 : 백만원)

年度		1985	1986	1987	1988	比 重
地域						
전	국	9,641,266	10,157,161	10,783,278	11,045,733	100.0
서	울	8,044,591	8,367,488	8,177,927	8,036,027	72.8
부	산	519,325	524,024	694,024	735,941	6.7
대	구	298,184	316,429	447,999	502,234	4.5
인	천	149,264	185,550	274,729	295,613	2.7
광	주	79,543	108,127	169,199	222,865	2.0
경	기	37,089	72,957	163,346	207,400	1.9
강	원	32,232	45,623	62,648	75,438	0.7
충	북	69,521	76,416	108,969	124,546	1.2
충	남	71,343	83,274	135,759	180,429	1.6
전	북	66,860	61,752	85,040	120,596	1.1
전	남	5,546	11,223	12,795	26,587	0.2
경	북	27,477	65,180	102,287	121,234	1.1
경	남	193,980	211,593	318,581	358,907	3.2
계	주	46,308	27,520	29,978	37,916	0.3

資料 : 韓國銀行, 「지역경제통계」, 1988.

地域企業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條件을 조성치 못하는 地域資金配分上의 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또한 金融의 中央集權化현상으로 金融政策에 대한 最高·最終의인 의결기관인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行政府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財務部長官이 同委員會의 議長임은 물론이고 9人的 委員 중 행정관료이거나 행정관청이 추천하는 者가 6인으로 전위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同委員會의 議決事項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各種의 認許可, 一定規模 이상의 貸出에 대한 本店의 承認制度, 심지어 資料의 서울 의존 등은 금융의 中央執權化 현상을 보여주는 두드러진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預金은 지방에서 이루어지지만 貸出 또는 投資는 中央에서 결정되는 綜合金融, 投資金融, 投資信託會社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經濟開發의 초기 단계에서 財政力이 약했던 한국경제의 경제개발을 위한 金融政策基盤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資金 및 貨幣의 순환과 實物活動이 地域間에 괴리됨으로써 오히려 국민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역할을 하고 社會的 追加費用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 金融活動의 서울 集中性

韓國經濟의 金融制度 및 運用은 中央集中型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韓國銀行등 7개의 銀行金融

機關과 生命保險會社 및 投資信託會社의 本店이 대부분 서울에 所在하고 있으며 貸出決定 등 각종 권한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金融機關 店舖數는 1988년말 현재 2875개 중 42.8%인 1230개의 점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 一般銀行 56.2%, 特殊銀行 48.5%, 金融機關 52.3%의 점포가 집중되어 있는데 經濟力이 집중되어 있는 地域내 금융기관도 집중되어 地方은 金融도 낙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金融活動의 對 全國比重은 (표 4)에서 보면 1987년말 현재 預金銀行 預金 57.2%, 預金銀行 貸出 58.5%, 非通貨金融機關 豫受金 49.9%, 貸出金 54.1%를 차지하여 地方金融은 취약한

<표 3> 金融機關 店舖數(1988年)

(單位: 個)

구 분	전 국(A)	서울	지방(B)	B/A(%)
예 금 은 행	2,972	1,233	1,739	58.5
비 통 화 금 용 기 관 ¹⁾	8,067	2,080	5,987	74.2
단 기 금 용 회 사	38	22	16	42.1
투 자 신 탁 회 사	70	38	32	45.7
상 호 신 용 금 고	334	75	259	77.5
신 용 협 동 조 합	1,278	219	1,059	82.9
생 명 보 험 회 사	6,347	1,726	4,621	72.8
합 계	11,039	3,313	7,726	70.0

주: 1) 개발기관, 새마을금고, 농·수·축협은 불포함
자료: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1989. 10.

<표 4> 금융기관 여·수신활동의 서울집중¹⁾(1987년말 현재)

(단위: 10억원, %)

구 분	지 역	전 국	서울	지방
예금은행 예금		45,720	26,174	19,546
		(100.0)	(57.2)	(42.8)
예금은행 대출금		40,602	23,767	16,834
		(100.0)	(58.5)	(41.5)
비통화금융기관 예수금 ²⁾		49,482	24,698	24,784
		(100.0)	(49.9)	(50.1)
비통화금융기관 대출금		37,856	20,496	17,360
		(100.0)	(54.1)	(45.9)

주: 1) ()안은 구성비임.

2) 개발기관, 단기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은행신탁계정,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생명보험회사 포함.

자료: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1988. 11)

반면 金融活動 전반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預金銀行의 地域別 預金實績推移를 (표 5)에서 보면 1980년대에 들어와서 서울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地域間에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도 1971년 63.2%에서 1985년 60.9%, 1988년 57.9%로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1971년 67.9%, 1985년 68.9%, 1988년 67.5%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도권의 비중증대와 서울의 비중감소는 상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首都圈의 廣域化가 진전됨에 따라 京仁地域이 실제적으로는 서울의 영향권에 흡수되고 있으므로 서울의 比重이 감소하고 있다기 보다는 서울로의 廣域的인 比重增大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預金銀行 貸出實態의 推移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표 6).

이상과 같은 地方金融活動의 서울依存은 地方에서 성장한 기업의 本社를 서울로 이전케 함으로써 地方에는 零細企業만이 남게되어 地方經濟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地域金融을 더욱 위축케 하는 원인이 되었다.

<표 5> 지역별 예금은행 예금추이¹⁾

(단위: 10억원, %)

지역 연도(달)	전 국	서울대지방		수도권대지방	
		서울	지방	수도권 ²⁾	지방
1971	9,766 (100.0)	6,178 (63.2)	3,588 (36.8)	6,634 (67.9)	3,132 (32.1)
1982	21,189 (100.0)	13,380 (63.1)	7,809 (36.9)	14,831 (69.9)	6,358 (30.1)
1983	23,908 (100.0)	14,884 (62.3)	9,024 (37.7)	16,684 (69.8)	7,224 (30.2)
1984	27,925 (100.0)	17,292 (61.9)	10,633 (38.1)	19,495 (69.8)	9,643 (31.1)
1985	31,023 (100.0)	18,878 (60.9)	12,145 (39.1)	21,380 (68.9)	11,863 (33.0)
1986	35,926 (100.0)	20,958 (58.3)	14,968 (41.7)	24,063 (66.9)	15,367 (33.6)
1987	45,720 (100.0)	26,174 (57.2)	19,546 (42.8)	30,353 (66.4)	15,367 (33.6)
1988	50,075 (100.0)	29,015 (57.9)	21,060 (42.1)	33,792 (67.5)	16,283 (32.5)

주: 1) ()안은 구성비임.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

자료: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1988)

〈표 6〉 지역별 예금은행 대출금 추이¹⁾

(단위 : 10억원, %)

연도(말)	지역	서울대지방		수도권대지방	
		서울	지방	수도권 ²⁾	지방
1971	919.5	590.6 (64.2)	328.9 (35.8)	622.9 (67.7)	296.0 (32.3)
1982	20,225.8	12,501.9 (61.8)	7,723.9 (38.2)	13,728.9 (67.9)	6,496.9 (32.1)
1983	24,150.3	14,834.6 (61.4)	9,315.7 (38.6)	16,339.9 (67.9)	7,750.4 (32.1)
1984	27,978.9	17,236.2 (61.6)	10,742.7 (38.4)	19,179.1 (68.5)	8,799.8 (31.5)
1985	31,798.2	19,501.2 (62.3)	12,297.0 (38.7)	21,757.6 (68.4)	10,040.6 (31.6)
1986	36,781.0	23,013.0 (62.6)	13,768.0 (37.4)	25,696.1 (69.9)	11,084.9 (30.1)
1987	40,601.0	23,767.4 (58.5)	16,833.8 (41.5)	27,139.6 (66.8)	13,461.6 (33.2)
1988	43,264.4	23,779.3 (55.0)	19,485.1 (45.0)	27,764.7 (64.2)	15,499.7 (35.8)

주 : 1) ()안은 구성비임.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1988)

3. 還元金融機能의 취약과 地方造成資金의 域外流出.

1970년대 중반이후 지역에서 성장한 상당수의 기업이 大企業化되어 서울로 本社의 이전을 단행하였으며 그 밖에도 지방소재 중견기업이 사무소를 서울지역에 설치하는 등 기업경영의 중심점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地域經濟의 成長基盤을 위축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금의 域內循環을 저해하여 地域內 還元機能이 취약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지방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地方造成資金의 域內還流度를 (표 7)에서 보면 1987년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전체의 域內還流度가 지방은 71%인 반면 서울은 129%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를 預金銀行과 非銀行金融機關別로 나누어 보면 銀行金融機關의 경우 지방의 域內還流度가 97%인 반면 非銀行金融機關은 지방의 역내환류도가 매우 낮아 48%에 불과하여 地方金融의 地域還流度 低下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非銀行金融機關別 域內還流度를 (표 8)에서 보면 地方의 환류도가 開發機關, 은행신탁 및 相互信用, 信用協同組合이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投資信託이 5.1%로서 94.9%의 예금이 서울로 流出되고 있으며, 生命保險과 相互金融 등이 비교적 유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地方資金의 域內還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표 7> 금융기관별 예대비율 (1987년 현재)

구 분 \ 지 역	전 국	서울	지방
전 금융기관	1.02	1.29	0.71
은행금융기관	1.07	1.14	0.97
시중은행	1.08	1.21	0.70
지방은행	0.83	0.96	0.82
특수은행	1.12	1.01	1.24
비은행금융기관 ²⁾	0.97	1.50	0.48
저축기관 ³⁾	0.90	1.07	0.85
투자기관 ⁴⁾	0.54	0.59	0.43
보험기관 ⁵⁾	0.56	0.69	0.45

- 주: 1) 취급점포 기준
 2) 1987년 12월 말 현재, 개발기관 제외
 3) 상호금융,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포함
 4) 단기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은행신탁계정 포함
 5) 생명보험회사

자료: 한국은행 및 각 지방은행

4. 實物經濟와의 乖離

地方金融은 實物經濟와의 乖離로 實物經濟의 成長을 制限하고 있다. 實物經濟에 대한 地域金融發展程度를 알기 위해서는 實物經濟指標로서 住民所得, 製造業生産額, 附加價值와 金融貯蓄, 金融與信등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알 수 있다. (표 9)에 의하여 1987년말 현재 제조업생산액과 附加價值에 대한 金融貯蓄의 비중을 보면 서울이 각각 481.6%, 1238.1%인 반면 지방은 각각 43.1%, 122.3%에 불과하여 實物部門과 金融經濟의 괴리현상이 극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製造業生産額과 附加價值에 대한 金融機關의 與信比重에서 보더라도 서울이 각각 32.8%, 835.2%인 반면 지방은 각각 33.9%, 96.2%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금융기관 여신규모에 있어서도 서울偏重現象이 심화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어 地方은 地方金融成長이 實物部門의 成長에도 미치지 못한데다가 지방의 還元金融體制의 미흡으로 地方經濟成長力이 制限을 받아 만성적인 資金難이 加중되어 왔다.

地方의 金融事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指標인 어음交換高의 현황을 (표10)에서 살펴보면 1987년말 현재 어음交換高의 全國에서 차지하는 서울의 비중이 86.0%인데 비해 지방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음不渡의 地域別 현황을 보더라도 서울이 0.06%로 전국평균 0.09%에 미달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은 0.29%로 전국평균에 비해 3배에 달하고 있어 서울에 비해

〈표 8〉 지방의 비은행금융기관별 여·수신고 및 예대비율¹⁾
(1987년 말 현재)

(단위 : 10억원, %)

구분 금융기관별	예 금 액 (A)	대 출 금 액 (B)	B/A
전 금 용 기 관	44,307.8 (100.0)	81,831.7 (100.0)	0.72
은행 금융 기관 ²⁾	19,546.1 (44.1)	16,833.8 (52.9)	0.86
비은행 금융 기관 ³⁾	24,761.7 (55.9)	14,997.9 (47.1)	0.61
단기 금융 회사 ⁴⁾	1,602.5 (3.6)	1,238.3 (3.9)	0.77
투자신탁회사 ⁵⁾	3,433.3 (7.7)	192.3 (0.6)	0.06
은행신탁계정	2,590.6 (5.8)	1,280.9 (4.0)	0.49
상호신용 금고 ⁶⁾	2,721.9 (6.1)	2,782.9 (8.7)	1.02
신용협동조합 ⁷⁾	884.2 (2.0)	861.9 (2.7)	0.97
상 호 금 용	5,420.0 (12.2)	3,903.9 (12.3)	0.72
새마을금고 ⁸⁾	1,716.5 (3.9)	1,448.4 (4.6)	0.84
생명보험	6,392.7 (14.4)	3,289.3 (10.3)	0.51

주 : 1) 취급점포 기준, ()는 구성비임.
 2) 농업저축은행 및 외국은행국내지점 대출금 제외.
 3) 개별기관 제외.
 4) 예금액 = 투자금융사의 종합금융사의 CMA, 발행어음 종합금융사 수식증권 매각잔액 및 신탁형증권저축.
 5) 예금액 = 투자신탁사의 수익증권순매각잔액 (외국인전신탁형증권 제외) 및 신탁형증권저축.
 6) 예금액에 일반차입금 포함.
 7) 예금액에 출자금은 제외.
 8) 통화지표 편제시 비통화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1988) : 각 지방은행.

지방이 金融機關 資金에의 접근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地方銀行의 役割未治.

地方金融 活性化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地方銀行의 設立目的을 보면 地方資金調 達 極大化, 地域社會의 土着資本形成, 地方所在 中小企業의 金融支援을 통한 地域經濟開發 및 地域間 經濟隔差에 있다. 그동안 地方銀行은 地方의 중추적인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할히 수

<표 9> 실질지표에 대한 금융지표의 비율¹⁾ (1987말 현재)

(단위: 10억원, 개, 1,000명, %)

구 분		전 국	서 울	지 방
식 물 (10억원, 개, 1,000명, %)	제조업생산액 (A)	91,946.6 (100.0)	12,120.0 (13.2)	79,829.6 (86.8)
	제조업부가가치 (B)	32,881.9 (100.0)	4,759.3 (14.5)	28,122.6 (85.5)
	제조업사업체수 (C)	50,063 (100.0)	15,243 (30.4)	34,820 (69.6)
	제조업종업원수 (D)	2,738.4 (100.0)	539.2 (19.7)	2,199.2 (80.3)
금 용 (10억원)	금융저축 (B)	93,306.8	58,923.7	34,383.1
	금융기관여신 (F)	66,800.7	39,750.9	27,049.8
비 율 (%)	E/A	101.5	481.6	43.1
	E/B	283.8	1,238.1	122.3
	F/A	72.6	328.0	33.9
	F/B	203.2	835.2	96.2

주: 1) ()안은 구성비임.

자료: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1988. 11)

<표 10> 어음교환고 및 부도율¹⁾

(단위: 1,000명, %)

연 도	지 역	전 국	서 울	지 방
어음교환고 (1,000억원)				
	1983	947.8	820.4	127.4
	1984	1,104.1	957.9	146.2
	1985	1,304.4	1,147.1	157.3
	1986	1,083.2	934.3	148.9
	1987	1,542.1	1,340.6	201.5
어음부도율 (%)				
	1983	0.11	0.06	0.42
	1984	0.09	0.05	0.36
	1985	0.07	0.05	0.27
	1986	0.10	0.07	0.34
	1987	0.09	0.06	0.29

주: 1) 전국의 경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평균이고, 지방의 경우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평균임.

자료: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1988)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地域金融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地域金融의活性化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중추적인 金融機能을 담당하는 것은 地方銀行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地方銀行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地域金融은 낙후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地方銀行이 취약하여 그 機能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地方銀行은 영업구역이 제한됨에 따라 그 성장이 제약되고 있다. 지방은행은 영업구역이 서울지점을 제외하고는 당해 道一圓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업구역의 제한은 地方企業에 대하여 地域間 자금결제를 위한 換業務를 포함하여 輸出入去來에 따른 外國換業務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기반이 견고한 去來企業들은 일정수준으로 성장하면 全國銀行으로 변경하거나 複數去來를 하게 되어 地方銀行의 優良去來業體와의 밀착도는 떨어지게 된다. 결국 이는 地方銀行의 성장·발전을 제약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營業區域制限은 지방은행의 大形化를 어렵게 하였고 地方銀行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게 하였다.

둘째, 1980년대에 들어와 金融自律化 및 銀行民營化措置에 의한 市中銀行 및 特殊銀行, 非銀行 金融機關의 증설 및 地方店舖의 진출 확대, 체신부에서의 저축 및 보험업무의 취급 등으로 地方銀行의 業務領域이 잠식되고 있다.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은 제한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들 금융기관은 다양하고도 營利上 유리한 受信商品으로 地域金融市場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다. (표11)에서 보면 1987년말 현재 地方銀行이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受信의 경우는 이들 금융기관보다 더 낮아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은행의 受信上 제약은 地域金融에 있어서 그 역할을 원할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지방은행은 全國銀行에 비해 經營效率이 극히 낮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이나 특수은행에 비하여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規模의 經濟는 달성할 수 없어 자금의 조달 및 운용면에서의 效率과 경영관리능력이 크게 뒤지고 있다. 자본금의 규모면에서 보면 지방은행은 (표12)에서 보듯이 1987년 말 현재 전국은행의 14.9%에 불과하고, 예금과 대출액의 기준에서 보면 각각 55.6%와 4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은행 수준 보다 경영효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전금융기관에 대한 지방은행비중 (1987년 말 현재)

금융기관별	구분	예 금 액		대 출 액	
		(10억원)	구성비 (%)	(10억원)	구성비 (%)
은 행 금 용 기 관		45,720	48.0	40,602	51.8
시 중 은 행		20,373	21.4	17,608	22.4
지 방 은 행		5,425	5.7	3,678	4.7
기 타		19,922	20.9	19,316	24.6
비 은 행 금 용 기 관		49,482	52.0	37,856	48.3
전 금 용 기 관		95,202	100.0	78,457	100.0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1988) 및 조사월보(각 월호)

<표 12>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경영지표 비교 (1987년 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구 분	금융기관별	지 방 은 행 (A)	시 중 은 행 (B)	A/B (%)
은	행 수	10	7	
점	포 수	415	894	46.4
	은 행 당 점 포 수	41	128	32.0
직	원 수	13,676	44,590	30.7
	은 행 당 직 원 수	1,367	6,370	21.4
	점 포 당 직 원 수	33	50	66.0
자	본 금	2,090	9,822	21.3
	은 행 당 자 본 금	209	1,403	14.9
예	수 금	41,446	160,602	25.8
	은 행 당 예 수 금	4,145	22,943	18.1
	점 포 당 예 수 금	100	180	55.6
	직 원 1 인 당 예 수 금	3.0	3.6	83.3
대	출 금	31,908	171,100	18.6
	은 행 당 대 출 금	3,191	24,443	13.0
	점 포 당 대 출 금	77	191	40.3
	직 원 1 일 당 대 출 금	2.3	3.8	60.5

자료 : 한국은행, 조사월보(각 월호) 및 지역경제통계(1988.11)

IV. 韓國 地域經濟의 均衡發展을 위한 金融制度 및 運用改善 方案

지속적인 經濟成長과 成長의 果實에 대한 地域間, 階層間, 職種間 適正分配가 한국경제가 當面 하고 있는 중요한 課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韓國의 金融經濟도 國民經濟의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그동안 韓國經濟의 地域的, 階層間 不均衡이 經濟戰略的 차원에서 中央에서의 裁定的인 金融政策의 추진으로 야기된 바가 컸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까지 韓國의 金融制度는 經濟成長만을 뒷받침하기 위한 內資動員의 極大化에 중점이 놓여져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韓國經濟는 集積의 利益을 통한 社會全體의 效率性 增大 측면 보다는 集積의 不利 益으로 인한 社會전체가 부담하여야 할 社會的 費用이 훨씬 커지고 있는 與件에서는 國民經濟의 均衡發展을 위한 地域經濟의 役割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大前提下에서 國民經濟의 地域間 均衡發展 및 地方經濟 活性化라는 측면에서 金融制度 및 運用改善 方案을 모색하여야 한다.

1. 資金配分方式의 地方分權化 및 金融自律化

전통적으로 中央集權統治體制를 지녔던 韓國經濟는 60년대이래 經濟成長政策을 집행하는데도 철저하게 政府介入型이었으며 中央集中的 方式을 택하였다. 實物 및 金融資源의 配分에 있어서 정부의 直接介入과 統制는 서울 등 大都市의 集中化와 過大成長을 가져 왔다.

이와 같은 韓國의 金融集權化 현상은 첫째 金融政策의 최고의결기관인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行政權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과 둘째, 地域金融에 대한 中央의 統制가 크다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金融產業은 경제성장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自律性이 결여되어 競爭原理와 市場機能에 따른 자금배분의 최적화를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金融機能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1980년이래 金融自律化가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아직도 市中銀行의 民營化도 형식에 그쳐, 人事權의 독립과 責任經營體制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均衡發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硬直的이고도 非效率的인 규제들을 철폐함으로써 실질적인 金融自律化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면 무엇보다도 地域經濟發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經濟의 서울偏重現象을 시정하여 地方經濟力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實物經濟의 主導者로서의 金融의 機能을 중시하여 地方金融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均衡있는 地域經濟發展의 관건이라 하겠다. 최소한 강조되어야 할 점은 自律化가 地域金融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均衡發展을 가져오기 위한 金融自律化의 실질적인 提高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인 課題는 첫째 金融通貨委員會의 公正性, 公益性, 專門性을 제고시켜야 한다. 金融通貨委員會의 公正性, 公益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人事와 任期 등에서 行政權으로 부터 獨立性을 유지해야 하고 정부관료가 참여하는 경우 정부시책 등 의견의 발표권은 있다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금까지 金融通貨政策은 GNP, 수출, 物價 등 巨視的인 經濟指標의 달성에 目標를 둠으로써 政策決定이나 수행과정에서 地方經濟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할 여지가 없었으나, 金融通貨政策의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地方經濟와 金融의 구체적인 특성을 검토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地域別로 서로 다르게 직면하는 경제여건의 變動에도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의 시행에 따른 地方分權化體系의 확정이 요구된다.¹⁵⁾

15) 김태보 "地方金融產業의 構造改善方案"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한 地方金融 活性化 研究報告書」내무부 1987. p. 69.

그 한 예로는 지역별 경제여건의變動이나 일시적인 資金需給의 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지점에 대하여 流動性調節機能을 부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第1次 成長據點都市로 既存 全國銀行의 本店을 이전시키거나 생명보험 이외에도 成長據點都市에 본사를 둔 保險會社, 投資信託會社 등의 設立을 적극 유도한다.¹⁶⁾

2. 地域還元金融의 擴充 및 地方中小企業 資金支援體制 提高

資金의 集中으로 야기되는 非效率 즉 地方資金이 서울에 集中됨으로써 야기되는 地方企業의 잦은 부도와 도산, 地方所在企業의 사무소를 서울에 開設함으로써 부담되어지는 追加費用 등의 社會的 費用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資金의 集中體制를 완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第2金融圈, 체신저축 및 보험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地域資金이 지역내에 환원됨으로써 지역의 實物經濟를 성장시킬 수 있는 制度的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¹⁷⁾

따라서 地域金融이 서울로 유출되는 것을 가급적 줄이고 地域內 혹은 地域間에 還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金融機關의 地方造成資金을 全額 地方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制度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첫째,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의 金庫業務를 地方銀行으로 一元化하여야 한다. 地方自治團體나 公共機關은 地方의 실질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金庫代行業務를 지방은행에 맡김으로써 地方銀行의 영업기반을 확대시켜 주고, 지방은행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해주는 相互補完關係를 강화함으로써 地域經濟發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둘째, 地方債 및 地方企業會社債의 引受를 投資信託會社 및 保險會社가 주로 우선매입하도록 강화한다. 地方公債는 100%, 地方企業會社債는 70%를 우선매입토록 하는 指針이 1987년 5월에 나왔으나 현재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地方企業發行社債保證의 확대 등과 같은 지방기업회사채 발행촉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投資信託會社의 國民投資債券引受義務를 부과하도록 한다. 현행 銀行이나 保險會社에만 부과되고 있는 國民投資基金의 출연의무를 投資信託會社에 부과하는 것도 投資信託會社를 통한 資金流出의 억제책이 될 수 있다. 國民投資基金의 확대는 地方에 대한 資金供給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며 地域開發資金의 원활한 공급을 도울 것이다.

셋째, 相互信用金庫의 支給準備金과 새마을金庫의 償還準備金 등을 地方銀行에 예치토록 하고 체신예금의 일정비율을 地方의 農·水産 및 지방은행에 예치토록 하여 地方中小企業 및 農漁家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사용되도록 制度化할 필요가 있다.

네째, 地域開發基金(regional development fund)을 설치·운용토록 한다. 地域開發基金은 地方

16) 「上揭書」 p.70.

17) 宋仁城 “地域造成資金의 地域內 還流促進方案” 「地方金融活性化 研究報告書」 내무부 1988. pp.97~103.

自治團體가 地域開發을 위한 각종 投資事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공급하고 이때 나타나는 자원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制度的 장치로 말한다.¹⁸⁾ 이 基金의 활용은 地域間的 隔差에 따라 비례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이 基金의 조성은 이제까지의 經濟成長期間 동안 집중적인 育成의 혜택을 받은 產業 및 地域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끝으로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義務比率를 상향조정하여 地方中小企業에 대한 支援制度를 강화토록 한다. 현재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義務比率는 지방은행이 80%, 市中銀行이 35%인바 市中銀行 地方支店の 義務比率를 地方銀行 수준과 접근되도록 상향 조정토록 한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地域內에 있는 中小企業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有望 中小企業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資金支援制度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有望 中小企業의 발굴과정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選定業體의 사업성보다는 企業實績등을 고려한 安定性 위주의 측면을 보완하여 事業性은 있으나 經營能力이 미약한 小規模業體가 제외되는 경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통화관리에서 제외토록 하여야 한다.

3. 地方銀行의 役割 強化

地方銀行은 金融서비스의 地域的 均霑을 유도하여 金融의 경제발전 先導機能을 통해 地方의 資金動員體制를 확충하고 地方産業을 金融面에서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地域經濟의 균형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지방은행은 1980년대에 들어와 金融自律化와 市中銀行의 民營化조치로 各種銀行의 預금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지방은행은 全國銀行과 제2금융권의 협공을 받는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나 地方實物經濟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地方資金의 조성 극대화 및 合理的 配分을 통한 資金의 效率性을 제고시키기 위하여는 지방은행을 地方金融情報센터로 육성하여 지방금융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방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地方銀行을 지역금융정보센터로 육성해야 하는 根據는 지역경제발전 에 대한 지방은행의 역할과 寄與度에서 찾아 볼 수 있다.¹⁹⁾ 첫째, 地方銀行은 地域을 주된 영업기반으로 하고 있어 密着性이 강할 뿐만 아니라 本店을 지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地域企業이나 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信用調査나 經濟調査機能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實相과 문제점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둘째, 지방은행은 地域造成資金의 지역내환류를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選元金融을 통한 지역경제의 安定과 成長에의 기여도가 크다. 셋째, 지방은행은 지역경제성장의 주축인 동시에 국민경제 생산기반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地域中小企業을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넷째, 지방은행은 지역내에 밀접한 점포망과 온라인망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뿐만 아

18) 吳然天 「韓國地方財政論」 박영사, 1989. pp.115~117.

19) 洪性漢 "地方造成資金의 地域內還流促進方案 「地方金融活性化研究報告書」 內務部, 1988. pp.174~175.

나라 점포망이 확대될 경우 지방은행은 지방금융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역할을 크게 증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방은행이 당해지역의 地域金融情報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해야 한다.

따라서 地方銀行制度 및 運用改善方案은 첫째, 地方銀行의 業務區域을 地方經濟圈 중심으로 廣域化한다. 지방은행이 성장을 제약받게 되는 것은 經營의 非能率等 內的 요인도 있으나 營業區域을 제한받는 外的要因도 있다. 현행 금융제도에 의하면 지방은행은 서울의 1개 점포를 제외하고는 당해 市·道 일원으로 영업구역이 제한되게 되어 있어 規模의 經濟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경영상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이 결국에는 지방은행의 발전에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1道1行主義에서 벗어나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을 단계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영남, 호남, 충남, 경기 및 강원지역의 광역화를 고려할 수 있다. 구역의 개편에 있어서 초점은 단순한 廣域化보다는 현실여건을 고려한 地域經濟圈의 설정에 있다.²⁰⁾

둘째, 地方銀行의 資金調達基盤을 확충한다. 지방은행이 全國銀行에 비하여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地域開發을 수행할 地方銀行이 公共資金의 結集과 配分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地方銀行이 地域經濟發展을 주도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資金調達基盤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地方自治制 실시에 대비하여 全國銀行이 취급하고 있는 地方公共機關의 金庫業務를 점진적으로 地方銀行에 이관시키도록 한다. 그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點을 지적할 수 있다.²¹⁾

첫째, 지역에서 納入·운용되는 지방재정자금을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및 地域資金還流率이 매우 낮은 市中銀行이 취급함으로써 지역자금의 域外流出이 조장되어 지역경제내의 資金難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지방은행이 地方公共金庫業務를 담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내의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地域金融과 地域實物經濟가 서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은행의 資金調達基盤의 확충을 위해 투자신탁, 상호신용금고, 새마을 金庫, 保險會社 등 非銀行金融機關의 支拂準備金이 전액 地方에서 운용되도록 地方銀行내의 예치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地域資金의 還元率도 높이고 地方銀行의 資金造成基盤의 취약성을 보완토록 한다.

셋째, 地方銀行의 業務領域을 확대토록 한다. 오늘날의 금융환경은 지방은행에 대하여 상당히 불리하다. 銀行金融機關과 非銀行金融機關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은행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20) 鄭義光 “釜山圈 中樞管理機能 確保와 地域金融體制 強化” 「釜銀調査」 제10권 釜山銀行 1987. pp.28~35.

21) 盧永起 “韓國地域金融의 活性化 方案 研究” 「經濟論文集」 제2집 中央大經濟研究所. 1988. p.48.

위축되고 있는가 하면, 기업들은 資本市場을 통한 直接金融에 의하여 자금조달을 행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金融의 國際化로 外國金融機關이 빠른 속도로 진출해오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지방은행이 地域金融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分業主義에서 탈피하여 兼業主義로 전환해야 한다.²²⁾ 즉 본래의 은행업무 이외에도 여러가지 다른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은행으로 하여금 ① 자금의 地方還元率이 높은 相互信用金庫, 短資會社, 리스會社 등의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은행이 地域의 金融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保險, 증권업무 기능도 부여토록 한다. ② 「팩터링」, 「리스」, 「벤처캐피탈」 등 금융서비스를 다양화해서 中小企業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中小企業關聯 정책자금을 지방은행에서 주로 취급토록 하여 地方中小企業에 대한 資金配分機能을 제고토록 한다. 따라서 현행 中小企業振興基金, 産業構造改善資金, 中小企業特別資金, 産業合理化資金 등 中小企業에 대한 制度金融을 地方銀行에 까지 확대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네째 地方銀行間의 業務協助體制를 제고토록 한다. 개별 지방은행의 업무를 다양화하는 이외에도 지방은행이 여타 금융기관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은행 상호간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방은행들이 공동전산망을 형성하여 활동하거나 현금자동인출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업무협조체제를 강화시켜 일반시중은행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地方銀行에 地域綜合情報센터를 運用하고 經營技法을 개선하여 銀行運營制度를 개선토록 한다. 지방은행의 주요거래대상이 되는 지방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제정세 및 경영, 기술 등에 관한 정보가 매우 어둡다. 따라서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실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이 자체적으로 地域綜合情報센터를 설치하고 국내외 경제경영, 기술정보를 수집·분석 배포함으로써 지방중소기업의 국내적 경쟁력은 물론 국제적 경쟁력을 적극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은행의 經營技法도 개선토록 한다. 가계자금의 흡수를 위해 家計性 預金과 貸出을 연결시켜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창의적이고 참신한 인재양성으로 새로운 金融技法의 개발과 전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4. 地方經濟基盤의 強化

지난 30여년간 韓國經濟는 지속적인 高度成長政策의 추구로 그 量的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質的인 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不均衡成長論의 입장에서 輸出主導에 의한 成長優先政策을 추구하여온 결과로서 이와 같은 高度成長을 추구하고 오는 과정에서 地域隔差가 심화되었다. 특히 大企業型 成長有望産業의 서울집중은 地方經濟基盤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地域間 不均衡問題는 더 미루어질 수 없는 限界狀況에 이르러 經濟만이 아니라 政治,

22) 盧永起 「上揭論文」 p.57.

社會, 文化, 安保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課題가 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地域隔差의 構造的 특징은 서울중심의 宗主化現象, 産業發展, 金融, 財政力 및 生活環境水準의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수출주도형 工業化가 추진되면서 首都 서울의 인구는 그 全國比重이 1962년 11.3% 1970년 17.6%, 1987년 25.2%로 매년 놀라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주변 仁川 및 경기도의 人口增加率도 197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首都圈은 1987년 인구 39.1%, 鑛工業雇傭 41.1%, 鑛工業生産額 39.9%를 시현하여 宗主都市化와 産業發展의 地域間 隔差가 심화되었다.

금융의 供給先導的인 기능은 실물경제의 발전을 촉발하고 실물경제의 발전은 금융의 需要追從機能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금융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할 때 地域金融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서는 中央集中된 國民經濟力을 地方分散化 시킴으로써 地方實物經濟力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취약한 지방경제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地方經濟基盤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서는 成長有望産業의 지방유치 및 大企業本社의 地方移轉을 유도하여 實物經濟의 주축이 되는 工業部門을 육성하는 한편, 첨단정보산업 등과 같은 高附加價值型 3차산업의 유치등을 통해서 지역경제내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産業關聯行政 서비스기능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여 地方中小企業에 대한 經營·技術指導 및 창업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地方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방의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해당지역별로 産業協同體制를 구축하도록 한다.

V. 結 論

지금까지 韓國經濟의 地域間 均衡發展을 위한 地域金融의 役割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地域金融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한국경제는 지난 30여년간 輸出主導的인 不均衡成長戰略을 집중적으로 수행한 결과 국민경제의 高度成長을 달성하였으나 地域間 不均衡이 심화되었는데 이러한 地域間 經濟隔差가 한국 경제발전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낙후된 地域經濟를 활성화시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달성하여 나가는 것이 한국경제가 당면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地域經濟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地域經濟內의 實物部門과 金融部門이 상호보완적으로 상승작용을 해야한다. 그런데 한국 지역경제의 경우 金融部門이 원천적으로 취약하여 가뜩이나 취약한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경제발전에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韓國經濟의 地域金融이 안고 있는 構造的 문제점을 요약하여 보면 첫째, 資金配分方式의 非伸縮性과 中央集中化로서 국민경제의 資金配分이 中央執權의으로 이루어져 왔고 둘째, 金融의 서울集中으로 地方金融이 地方實物經濟活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셋째, 地域資金이 域內還元機能이 미흡하여 地方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에 遺流되지 않고 서울 등 他地域으로 역

류하고 있으며 네째, 地方金融은 實物經濟와의 괴리로 실물경제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다섯째, 地方銀行이 地域金融의 중추센터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는 實物部門과 金融部門이 수레의 두바퀴처럼 相互補完的 작용을 할때 원활한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때 지역경제가 均衡的으로 발전하려면 자금순환 역시 實物經濟活動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균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경제내 地域經濟 均衡發展 및 地方經濟 活性化를 위한 金融制度 및 運用改善方案은 資金配分方式의 地方分權化 및 金融의 自律性 提高, 地域還元金融의 확충, 地方銀行의 役割 強化 및 地方經濟基盤의 強化라는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Summary

Some Measures of Vitalizing Regional Finance for Balanced Development in Korea

Kim Tae-bo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role of local financ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lagged region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local finance in Korean economy, and to formulate strategies to vitalize the local finance for the balanced regional economy in Korea and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development in lagged ones

Korean economy has achieved the rapid growth through the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since last 30 years, but the unbalanced finance among regions has deepened, however and this unbalance in turn has become one of main obstacles to the stable growth of Korean economy. Thus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agged regions and the vitalization of local finance became the most urgent task to deal with in the recent economic policies in Korea

For the balanced regional economy in Korea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agged regions, It is very important to vitalize the local finance of these regions.

In order to vitalize the local finance effectively, strategies to be suggested are ① to decentralize the allocation process of development funds, ② to stop leaking local funds especially to Seoul and increase loans to local industries through the local branches of nation wide banks, ③ to promote and extend the roles of local banks, and ④ to develop and strengthen the real sector of regional economies.